

# 손바닥컴퓨터 '셀빅' 개발 출시

## 벤처기업 (주)제이텔

손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셀빅'을 개발하여 생선에 들어간 벤처기업 (주)제이텔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3년간 1천2백만달러 수출계약을 하고 유럽시장 진출도 교섭중이다. 로열티없이 자체 개발로 독자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제이텔은 '셀빅'이 동급에서 세계 최소형인데다 값도 저렴해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친숙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은근히 어깨를 조여 오는 무게, 언제 방전될지 모르는 배터리, 복잡한 조작기능에 불만을 토로한다. 더구나 이동하면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주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동컴퓨팅(mobile computing)에 알맞는 좀더 작고 가볍고 조작이 편리한 제품은 없을까. 전자수첩 크기의 휴대형 정보단말기(PDA)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란 손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컴퓨터이다. 주소록이나 일정 관리, 계산기 기능은 물론이고 무선통신과 다른 PC나 PDA와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차세대 정보장치로 복잡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금세 익숙해진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PDA는 작년 미국 쓰리콤의 '팜파일럿'이 전



▲ 연구원들이 운용체제 작동실험을 하고 있다



▲ 신동훈사장

세계적으로 2백만대를 판매하면서 순식간에 대중화 바람을 탔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제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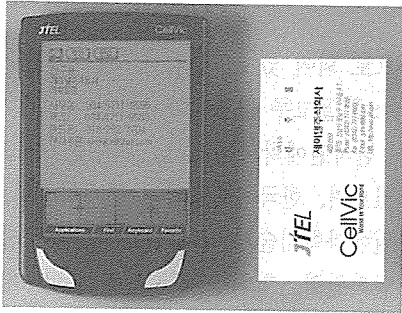
시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데이터 무선전송이 점점 수월해지는 통신 환경에 합승하여 초소형 이동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이동통신시장의 확장이 사회적, 기술적으로 이동컴퓨팅 시장 형성의 기반을 이루면서 이 시장은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쓰리콤, 애플, 샤프, 카시오 등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PDA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에서 얼마전 국내에서 출시된 '셀빅(Cellvic)'이라는 PDA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셀빅을 개발한 곳은 불과 1년 남짓된 벤처기업 '주식회사 제이텔(JTEL CO.,LTD)'. 셀빅은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편리한 휴대성, 강력한 기능, 데이터 보안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이 제이텔 신동훈사장의 말이다. 현재 국내의 PDA 제조업체는 LG, 삼성, 제이텔의 3개사이며 특히 제이텔은 기존 경쟁사인 대기업들과는 달리 로열티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자적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사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 국내기술로 개발...값도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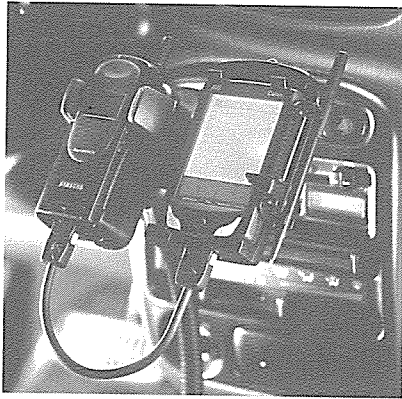
"PDA가 일반 전자수첩과 다른 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빅은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다섯개 정도에 불과한데 셀빅이 그 중에 하나이다. 국산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셀빅의 공급가는 매우 저렴하다.

PDA는 역사가 짧다. 가장 앞서나간 애플사도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93년에 PDA 개발에 뛰어든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신사장은 강조한다. "이 분야의 국내기술은 외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액정화면(LCD) 등과 같은 핵심부품의 70% 정도가 국내 기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DA로 꼽히는 팜파일럿은 작고 가벼우며



▲ 제이텔에서 개발한 '셀빅'

휴대폰과 연결한 '셀빅' ▶



문자인식기능이 뛰어나다. 통신기능은 미약한 편이지만 저렴한 가격과 PC와의 손쉬운 데이터교환 기능으로 인정받는다. 국내에서는 한메소프트가 한글 사용이 가능한 '한메한글'을 내놓아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 제이텔에서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셀빅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팜파일럿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기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싸다. 신사장은 동급에서 세계 최소형이면서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말한다. 셀빅은 PC와 셀빅간 데이터통신을 지원하는 모뎀을 갖추고 있어 휴대폰과 연계한 E-mail 송수신이 가능하다. 주소록이나 일정 등 개인정보관리기능은 물론 문자인식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직은 한글과 영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다국어 지원 구조에 중점을 두고 중국어와 일본어 등에 대한 인식기능을 첨가해나갈 방침이다. PDA는 배터리 사용시간이나 가격문제 때문에 CPU의 성능이 기존 PC의 백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이텔에서는 저전력 운용체제에 주력했다. 저성능의 CPU상에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가벼운 형식이 필요했기 때문. 신사장의 목표는 팜파일럿처럼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이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출신인 그는 미국 시러큐스대학(Syracuse Univ.)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90년에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했다. 그 후 93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에서 PDA 개발팀장을 맡으면서 PDA와 인연을 맺었다.

### 동남아에 1백50억원 수출계약

“당시 국내 대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운용체제 개발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자체의 운용체제 개발을 통한 저렴한 시장이 있다고 판단했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죠.” 신사장은 “휴대형 정보단말기는 정보통신부의 10대 수출전략과제 분야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무선호출기 내장 PDA’, 하반기에 ‘바코드 스캐너(bar code scanner) 내장 PDA’ 등을 출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2000년 하반기에는 셀빅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컬러 LCD, 무선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신 및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갖춘 21세기형 첨단 정보처리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제이텔은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싱가포르의 에어로플러스(AeroPlus)사에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1천2백만달러(1백5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99년 3백만달러규모). 에어로플러스사는 지난 달부터 제이텔의 PDA 제품을 제이텔 자사 브랜드인 셀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동남아지역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는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E-mail을 이용하여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지요. 신속한 결정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는 늘 계획을 세우고, 일단 세운 계획은 철저히 실천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가 회사를 경영해 온 기본 방침이었다.

지난해 1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전시회에서는 각종 성능의 PDA와 손바닥 크기의 PC, 디지털 카메라 등 차세대 정보통신제품들이 넘쳐났다. 전 세계의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망의 속도향상과 인터넷 전화, 웹TV, PDA 등 다양하고 손쉬운 단말기의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고 그 사용유형이 대중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작년 11월 우편배달원들에게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첨단 하이테크장비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다. ㉟

장미라<본지 객원기자>